

글로벌 마인드 함양·미래 설계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포럼 개최

고교생 250여명 대상

미국 유학 한인학생회 멘토 초청 2017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포럼이 내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고교생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미래 설계를 위해 실시하는 이 포럼은 도내 고교생 250여명을 대상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진행된다.

이날 개최식에 이어 오전 10시부터 장발장은행정이사 '소박한 자유인' 발기인인 홍세화 작가가 글로벌 시대의 인문학적 가치와 리더십을 주제로 1시간 동안 특강을 펼친다.

홍세화 작가는 특강에서 "자신을 어떤 인간으로 지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물음이 되어야 한다"면서 독서와 토론, 직접 경문 숙고와 성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특강이 끝나면 곧바로 미국 한인 유학생 6명으로 구성된 멘토단과의 공감콘서트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박찬모 허버드대 심리학 박사, 정나현 MIT대 도시환경공학 박사, 임성원 스탠퍼드대 생명공학 박사, 최윤희 컬럼비아대 지속가능경영학 박사, 조성준 프린스턴대 전산생물학·생명공학 박사, 황중현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기계



세계태권도엑스포와 한류 전파 협약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와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최동열)가 7일 태권도 문화체험 활성화 및 한국문화 태권정신 함양을 통한 한류문화 전파 등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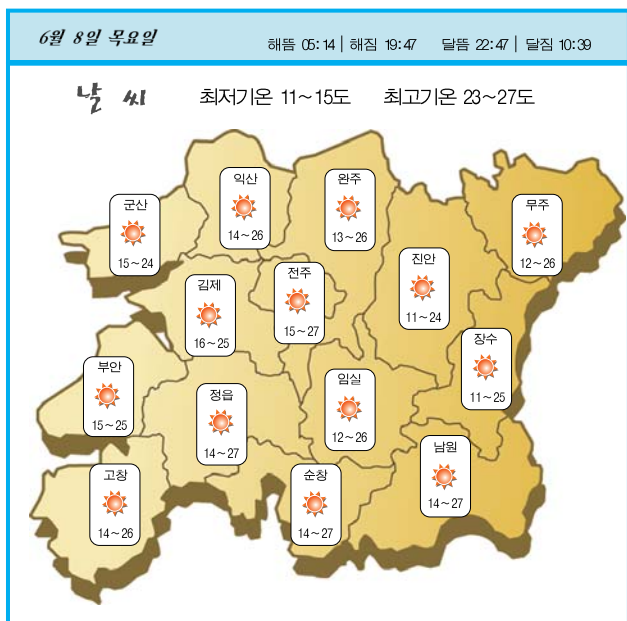
공학 박사 등이 참여한다.

오후에는 멘토를 바꿔가면서 멘토-멘티 만남 및 소그룹 토론이 계속 이어진 뒤 오후 4시30분 기념촬영 후 폐회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고교생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역량과 글로벌 리더십을 키워주기 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면서 "특히 홍세화 작가의 특강을 듣고 미국 유학생 멘토들과도

토론을 해봄으로써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해은기자



학교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교육정책포럼 개최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학교 민주 시민교육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주제로 제10회 교육정책포럼을 오늘 오후 3시 30분 전북교육청 2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교육정책포럼에선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가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방향과 초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가형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전북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안중만 진안 백운초 교사 이재호 부안 주산중 교사 강민진 인권친화적 학교나눔 운동본부, 조아현 군산 남고 학생이 토론자로 나선다.

장은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학

생들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하고 습관화, 일상화 해야 한다"며 "관공과 이질적인 것에 대한 포용, 민주적 상호존중 등의 자세와 태도에서 파생되는 시민적 예의를 익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형 연구원은 전북 교사 대상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과정, 학교 문화, 학교 밖 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주 시민교육 지침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해은기자

전주 기록물, 시민의 힘으로 '풍성'

전주정신숲, 상반기 총 200여점 기증·기탁 이어져

전주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발굴해 소중한 기록 자산으로 보존하는 전주정신숲(기록원) 설립에 시민들의 뜻깊은 기증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는 7일 전주시장실에서 소중한 자료를 기증·기탁해 준 시민들을 초청해 기탁증서를 전달하고, 기록물을 함께 둘러보는 '전주 기록물 기증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그간 꾸준히 진행된 전주 기록물 기증캠페인과 수집공모전 등을 통해 각 가정 및 단체에서 보관해온 기록물을 기탁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탁증서를 전달했다.

이들이 기증 기탁한 주요 기록물은 가족앨범(1930년대 유리원판 사진 100여장), 선천 유품(일제강점기 교과서, 토지문서, 회중시계 등), 향토지(전주 시사·도지, 읍지, 잡지), 100년이 넘는

신약전서, 교육자료(졸업앨범, 졸업장, 교지 등), △최명희 작가의 고교 백일장 수상작이 실린 작문교과서(1968), 전주향원회 자료(1951년 결성된 대를 이은 전주 사랑 토박이 모임), 2002년 월드컵기념품 40종(정동기업 기증) 등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시청로에서 열린 전주 기록물 전시회를 관람한 후 전주 관련 기록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집안에서만 소장하고 있던 기록물을 찾아 기증 기탁의사를 전해왔다.

이러한 기증캠페인과 수집공모전을 통해 올 상반기에 시민들로부터 기증 기탁 받은 기록물은 총 200여점에 달한다.

이날 기록물 기증의 날 행사에는 또 기증기탁지본 아니라 기록의 중요성과 기증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종교인들도 함께 자리해 어떠한 보상도 바라

지 않고 각종 소중한 자료를 선뜻 내놓은 기증자들의 아름다운 마음에 박수를 보냈다.

이와 관련, 전주의 옛 사진과 문서, 도서 생활용품 등 전주 기록물은 지금은 자취를 감춘 장소와 기억이 희미해지는 사건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인물, 생산물품 등에 담긴 시대상과 도시변천사를 파악할 수 있어 지역의 특수성과 문화적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기록의 힘은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 수많은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데 있다. 기록물을 기증해준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전주의 인문학적 자산이 더욱 풍성해져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전주의 오래된 기억을 담은 기록물이 미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역사의 창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인재용기자

전주 꿈마중 진로박람회

전주교육지원청이 주최, 주관하고 전주시에 후원하는 '2017 전주 꿈마중 진로박람회'가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늘 오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개최식을 시작으로 두 개 영역으로 펼쳐진다.

'울샘과 마을책이 만나는~'에서 볼 수 있듯 이번 박람회는 기존의 학생 대상 축제식 형태에서 벗어나 교사의 진로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교실과 교과서의 외연을 확장하여 교육의 동반자로서 마을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협의하는 만남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고입 및 대입중심의 왜곡되거나 과잉된 진학교육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박람회는 교사와 마을의 협력체가 만나 학생 배움과 성장 중심의 공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장이 될 것이다.

/정해은기자

전북교육청, 대학별 대입전형전문가 양성

전북도교육청이 서울 주요대학, 지방 거점 국립대학 등 도내 수험생들이 다수 지원하는 대학에 대한 대입전형 대응력을 높인다.

7일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수험생들의 대학 지원 경향을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학 등에 대한 특화된 지원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양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서울 주요대학, 과학기술원·교대, 지방 주요대학 등 지원 대학을 4개 그룹으로 나누고 학교별로 4명의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번 양성과정이 완료되면 수험생

들은 1차적으로 담임교사에게 대입 지도를 받은 후 그룹별 전문 교사들에게 정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교육청은 우선 도내 10개 고등학교에서 4명씩 총 40명과 대입전형 지도원 40명 총 80명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 이번 달 23일 대입전형 전문가 집중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사들은 4개 그룹으로 나뉘어 대학전형 주요사항에 대한 특강과 집중 분석 작업과 토론에 들어가는 등 전문성을 키우게 된다.

도교육청은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연차적으로 도내 모든 고등학교로 대입전형 전문가 양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해은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에서
행복한 교육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원천 기정의 '보급차'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